

CEO 동선

### 호남고속철도 등 충청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8월 8일 호남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등 충청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해 혹서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2014년도 열차운행계획 수립

- 올해보다 34회 증가한 1일 3446회 운행 -

기술본부는 전국 철도 81개 노선(3561.5km)에 대한 2014년도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열차운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매일 3093회의 주중 정기여객열차와 주말정기열차 64회 및 화물열차 289회가 운행될 예정으로, 올해(3412회)보다 34회 증가된 총 3446회의 열차가 운행된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296회, 호남선 92회, 중앙선 82회, 경전선 71회, 전라선 61회 등이고, 열차종류별로는 올해보다 KTX가 2회 감소(경부 4회 감소, 전라 2회 증가), 무궁화호 2회 증가, 전동열차 26회 증가된다.

특히,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나들이객의 수송을 위해 주말에는 KTX열차 6회(40회→46회)와 무궁화호열차 2회(4회→6회)를 증편하여 정기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2014년도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선로배분 신청에 따라 선로배분권자인 공단의 검토와 선로배분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2013년도까지는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의 안전성 확보와 철도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해 선로배분업무가 코레일에서 공단으로 이관됐고, 국토교

통부에 선로배분심의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다.

김형룡 선로배분부장은 "공단이 선로배분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운행은 지양하고, 안전을 위한 선로작업시간 확보와 공공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해 철도운영시간 공정한 선로배분을 위한 선로배분시스템 개발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2014년도 열차운행계획〉

구분	열차종별	2013	2014	증감(13년 대비)	
여객	고속열차	202	200	△2	
	ITX-청춘	44	44		
	새마을호	50	50		
	누리로	22	22		
	무궁화호	277	279	2	
	동근열차	46	46		
	일반계	641	641	0	
	전동열차	2,426	2,452	26	
	소계	3,067	3,093	26	
	화물	고속열차	40	46	6
주말 정기열차	ITX-청춘	10	10		
	새마을호	2	2		
	무궁화호	4	6	2	
소계	56	64	8		
총계	총계	3,123	3,157	34	
화물 열차	정기열차	컨테이너	76	76	
	일반화물	213	213		
	소계	289	289	0	
총계	총계	3,412	3,446	34	

### 철도건설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 간접비 청구 소송 기각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판대-서원주) 궤도공사에 참여한 골드레일로드(주)가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1억23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한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계약을 변경하여 연장된 준공기한 경과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부는 최근 늘어나는 건설사들의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이반 판결을 참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의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뉴스 ('13.8.12~'13.8.18)

- VE·설계심사 통합 시행 철도공단 업무효율성 제고(대전 14)
- 경남 最古 '원동천 철교' 역사 속으로(국제 02)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대전 05)
- 춘천~속초鐵, 예산반영 여부 초미관심(강원 02)
-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사업 가속 사전 타당성 용역 눈앞(경기 02)
- 국토부 광역교통정보 공개(강원 09)
- 김포도시철도 시스템 홍보 차량전시회(경인 19)
- 현대로템, 브라질 450억 규모 전동차 수주(동아 B04)
- 산·학·연·관 '건축설계산업 활성화' TF 9개 구성(파이낸셜 21)
- 철도공단 협력사 생산성 인종(충청투데이 07)
- GTX 이용량 확보 위해 연계교통체계 반드시 구축돼야(경기일보 03)
- '대형 안전사고' 해법 현장을 찾는다(서울신문 11)
- 지방공기업 자금 '유리알' 관리(서울신문 12)
- 수도권 1시간 생활권 만들 GTX, 드디어 첫삽 뜨나(조선14)
- 건설업종 불공정 하도급거래 판친다(세계14)
- 국토부, 표준 품셈 마련 27개 건설기술 적용(한국경제29)
- '낙후지역 예타조사 면제' 이강중 의원 법안 발의(강원3)
- 자연재해·환경 평가 속 빼놓고 경전철 재추진 발표한 서울시(중앙15)
- 610km 거리를 35분만에?(동아3)
- SOC 예산투입 지연에 국가손실 눈덩이(서울경제4)
- 특화 기술력 부족 탓 해외시장서 찬밥신세(파이낸셜7)
- 국토부, 철도특성화 대학원 3곳 운영 KAIST-교통대-우송대와 협약식(동아 28)
-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 방안 조속 마련' 광주 지하철 2호선 내년 하반기에 설계 착수(광주 01)
- '터졌다하면 대형'... 산재 예방대책 현장선 먹통(동아 12)
- 불공정관행 개선에도 체감도 낮아(내일신문 10)

### 호남고속철도 최대 난공사 구간 갈산터널 공사완료!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8월 8일 호남고속철도 최대 난공사 구간인 갈산터널(3027m)을 2011년 4월 착공한 지 2년 4개월 만에 완공했다.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일원의 갈산터널은 지방 2급 하천인 백천과 인접하여 풍화대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KTX 등 열차가 운행 중인 경부선 하부와 중부내륙복합화물터미널 인입철도의 교각 기초에 매우 근접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터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입철도 교량 및 경부선의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등 호남고속철도의 터널 중 가장 건설이 어렵고 위험한 구간이다.

본부는 더욱 안전한 시공을 위해 전문성 강화와 무재해 안전시공이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터널분야 전문가 5인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최첨단 터널 공법인 지붕형 강관보강공법(PRM)을 적용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완료했다.

장봉희 건설기술처장은 갈산터널 완공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 충청지역의 총 15개 터널(총연장 28.6km)의 공사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후속공사인 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 등 모든 분야의 공사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갈산터널 내부 시공완료 전경

### 1사1촌 결연마을 고추따기 봉사활동

- 폭염 속에서 직접 재배한 고추를 수확하여 김장까지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에 따르면 KR봉사단은 8월 9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논산시 황산별 참살이 마을을 찾아 고추따기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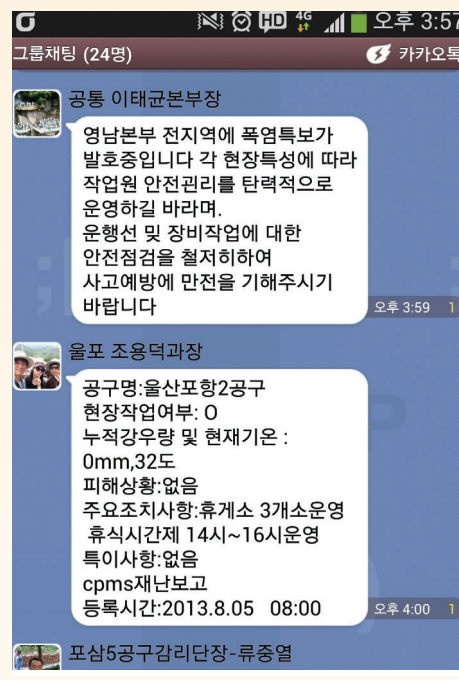
인직원 20명으로 구성된 KR봉사단은 34℃가 넘는 폭염 속에서 고추를 수확하여 세척 및 건조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단은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부터 김치까지'를 슬로건으로 올 봄부터 고추 모종 심기 및 지주대 세우기, 김자 수확 등의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본부는 직접 재배한 친환경 재료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가족봉사단 농촌문화체험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결연마을과 교류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 영남본부, '스마트한 안전관리' 시행

- 특별안전교육 및 SNS 이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행 -



도고 있다.

앞으로도 본부는 공사안전관리목표지수 및 재해율 관리를 위한 장비작업 일일보고, 장비이력관리, 운행선공사 작업승인중 시행,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고체계 확대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사적 품질·안전경영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남본부 김기훈 기자>

###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8월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강화'라는 정부정책에 맞춰 대전중부소방서에서 전문강사(이은주 소방장)를 초빙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의적절한 1차 대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